

브라카의 소식들

Beracah Vally News



제 4 호

발행인/김승석 · 발행처/갈보리선교회 · 주소/138-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314-10 · Tel · FAX/(02)423-2826, (02)554-2319

대전 갈보리 선교회를 인도하며



대전지회장 천태근목사 (대전 참아름다운교회)

사람은 태어나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행복한 줄 압니다. 그 동안 대전 갈보리선교회를 인도하면서 기뻐했던 일과 당황했던 일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대전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중에 대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졸도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대원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당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조그만 수고에 대하여 대전동부경찰서 서장님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감사패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감사한 일은 청소년분류감호소에 매월 셋째 주면 어김없이 나가는데 70-80여명의 중·고등부 유치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결실이 있게하심을 보면서 벅찬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대전팀도 서울팀처럼 열심히고 멋있고 예쁜 대원들이 하나되어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은 모여서 철야기도회를 가지며 사랑으로 뚫뚫 뭉쳐서 주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팀원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서울팀 못지않게 열심히 그리고 능력있게 사역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본갈보리 집회



이명진집사 (후원회원)

남인천교회 주일 밤 예배시간에 갈보리선교회가 주관하여 저녁예배를 인도한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25년만에 처음 만나는 친구의 모습을 그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녁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예배 때 처음으로 선교드라마를 진지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서곡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무용을 보고 '인간의 몸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무용과 찬양, 목사님의 메시지와 드라마가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고 저는 선교회의 노련한 모습에 참으로 감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는 더욱 감동하고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저녁예배를 드린 후 전보다 더욱 더 갈보리선교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자그마한 선교비가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5년만에 처음 보

는 주정림 자매의 모습을 갈보리선교회에서 다시 만나게되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모습은 25년 전보다 더욱 더 아름다워보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는 갈보리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아래와 같이 제15차 및 16차 국내순회전도를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기에 먼저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금번 집회들을 마련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제15차 국내 순회전도보고

가. 일 시 / 1998년 8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나. 대상지역 /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원

다. 대상기관 / 낮시간-군부대 및 특수기관 밤시간-지역교회 및 군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

- 총지휘 /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 메시지 및 지도위원 /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 태화교회), 김종남 목사(이사, 태안 파도리교회), 정이남 목사(이사, 이리 임상교회), 김승석 목사(회장, 서울 충만교회), 갈동수 목사(서울 동광교회)
- 단 원 / 김철우(간사, 서울 충만교회), 주정림(서기, 서울 증가성결교회), 박지연(간사, 서울 충만교회), 백주현(간사, 서울 충만교회), 유선영(엔지니어, 서울 충만교회), 심지은(단원, 서울 충만교회), 윤정화(회계, 서울 충만교회), 김현철(단원, 서울 충만교회), 구문희(단원, 울산 태화교회), 김현성(단원, 서울 충만교회), 박충인(단원, 울산 태화교회), 원종석(단원, 서울 충만교회) 총 12명

마. 집회일정 /

	1주간	2주간
주		8월 9일 울산 대암교회(배광식목사) 울산 태화교회(박신봉 목사) 울산 남울산교회(이광희목사)
월		8월 10일 울산 대광교회(서정배 목사)
화		8월 11일 울산 검단교회(박복상목사)
수	8월 5일 소록도 남성교회(김명환목사) 소록도 신성교회(김명환목사) 고흥 거금도대흥교회(이선행목사)	8월 12일 울산 명성교회(손종철목사)
목	8월 6일 전남 7391부대 2대대(김남길 군종)	8월 13일 울산 울산남교회(김호환 목사)
금	8월 7일 부산 신망애양로원(한대영 원장) 울산 우정교회(변재훈 목사)	8월 14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

제16차 국내 순회전도보고

가. 일 시 / 1999년 1월 8일(금)부터 24일(주), 31일(주)까지

나. 대상지역 / 경남 거제도, 경북 상주, 인천, 경기도 일원

다. 대상기관 / 낮시간-군부대 및 특수기관 밤-지역교회 및 군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

- 총지휘 /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 메시지 및 지도위원 / 박신봉 목사(이사장, 울산 태화교회), 김종남 목사(이사, 태안 파도리교회), 정이남 목사(이사, 이리 임상교회), 김승석 목사(회장, 서울 충만교회), 갈동수 목사(서울 동광교회), 천태근 목사(이사, 대전 참아름다운교회)
- 단 원 / 김철우(간사, 서울 충만교회), 주정림(서기, 서울 증가성결교회), 박지연(간사, 서울 충만교회), 백주현(간사, 서울 충만교회), 유선영(엔지니어, 서울 충만교회), 윤정화(회계, 서울 충만교회), 김현철(단원, 서울 충만교회), 구문희(단원, 울산 태화교회), 김현성(단원, 서울 충만교회), 박충인(단원, 울산 태화교회), 원종석(단원, 서울 충만교회) 총 11명

마. 집회일정 /

	1주간	2주간	3주간
월		1/11 거제 애광원&민들레집 (김임순, 김말순 원장) 거제 가배교회 (김기현 목사)	1/18 포천 105기보대대 (정성호 목사)
화		1/12 거제 성지원 (주수명 원장) 거제 가배교회 (김기현 목사)	1/19 포천 전격부대 628포병 대대(정성호 목사)
수		1/13 경북 장평교회 (강병원 목사)	1/20 인천 은성교회 (이상철 목사)
목		1/14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병선 목사)	1/21
금	1/8 거제 거림교회 (최경수 전도사)	1/15 인천 인광교회 (계한교 목사)	1/22 인천 송의감리교회 (이호문 목사)
토	1/9 통영 충무자생원 (한삼주 원장)	1/16	1/23
주	1/10 거제 오수교회 (정상길 목사) 거제 가배교회 (김기현 목사)	1/17인천 백마장교회 (김학범 목사) 인천 남인천교회 (김찬홍 목사)	1/24 20사단사령부 (정태식 목사) 1/30 육군 교도소 (이용락 목사)

내가 만난 갈보리선교단 집회

주님의 길은 가시밭길

주수명 장로 (거제도 성지원 원장)

김승석 단장목사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세상의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시는 귀 갈보리선교단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성지원에서 행하셨던 찬양과 뮤지컬은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 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엮은 순서는 다른 선교단에서 볼 수 없었던 순서로서 감명깊게 감상하였습니다. 좋은 선교단을 창출하여 오늘까지 이끌고 오기까지는 남모르는 고통이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단장목사님!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인 줄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다니시다가 한국에서 쉴 때에 저희 거제도를 찾아 주십시오 그 때에 연락주시면 하룻밤 재워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역 감당하실 때에 식사 한 번 대접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훗날 만나면 식사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늘 주안에서 평안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온 단원들이 주안에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거예요

박미옥 (거제도 가배교회)

많은 부흥회를 보진 못했지만... 이번 집회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제가 지닌 나쁜 신앙생활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저의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저의 잘못된 점들...이제 반성하려 합니다. 예전엔 저의 생활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이젠 하나님 속에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주님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뭐하나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없나?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싸우고 헐뜯고...이젠 이런 저의 생활이 변화되어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된 점들을 이젠 주님께 아뢰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죄인이라고 밝히고 고백하지만 이젠 더욱 진실해진 저의 모습을 돌보아 주십시오.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참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며 한 층 더 나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연극(무언극)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전하는 여러분들의 복음사역이 앞으로도 세계곳곳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미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울림들...

중등부 학생 (인천 백마장교회)

친구가 물었다. "야! 어디가?" "2부 예배 참석해야지 갈보리선교단인가? 거기서 와서 드라마한다고 하더라. 되게 괜찮데..."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럼 5층 맨 앞좌석 자리말야봐! 알았지?" 예배가 시작되었다. 선교단의 워십댄싱이 시작될 때까지 내 주위에서는 떠돌던 웅성거림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차츰 분산되어 있던 주변의 시선들은 무대중앙의 사람들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음악과 춤이 그칠 즈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설교내용에는 죄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장대한 음악이 울리고 해설자의 멘트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움직임도 차차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멘트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오심과 행함 그리고...그의 죽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주 미세한 음까지도 가슴속에 새로운 자극으로 꿈틀거렸다. 그것이 단순한 소리였다면 듣는 이에게도 단순한 소음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울림이 새삼스럽게도 가슴속에서 울리고 때리고 요동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울림도 요동침도 움직임도 모두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로 끝이 났다.

하지만 내 가슴속에서 진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 움직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난 초심자의 마음이 되어야 겠지. 아주 선하고 성실하게...그래 이젠 할 수 있겠지..." 살롬! 갈보리선교단원님 그리고 담당 목사님!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공연 잘 보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 하나가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한 어린 심령까지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희에게 전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동감하며,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갈보리선교단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았어요

거제 성지원(고아원) 가족이

우선 갈보리선교단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갈보리선교단께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보리선교단에서 한 울동, 찬양,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며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런거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찬양과 울동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난 다음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듯이 돈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다시 울동과 찬양을 하였는데 노래는 잘 따라할 수 없었지만 그 울동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다. 앞에서 본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셨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드라마였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 번 갈보리선교단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기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들이 많으면 한다.

생생한 드라마, 찌르는 말씀

1기갑 628대대 제2포대 상병 정종현

'99년 우리교회를 이끌어 갈 군중병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곳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렇게 갈보리선교단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드라마로 장병들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 행복에 관한 것들에 대해 무엇보다 성경적이며 복음적이게 말씀해 주시

서 무척이나 감사한 심정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 모인 군인들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줄 모르고 알 수 없는 감사함에 빠져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 99년 가운데 우리 부대 안에서 부흥의 감격과 소망을 볼 수 있었고 언제나 변함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수고한 갈보리선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많은 성령의 체험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어요

25사단 신교대 훈련병 김세운

처음엔 일종의 종교활동인 줄 알았는데 보고, 듣고, 느낀점이 많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울동팀의 아름다운 울동이 너무 보기 좋고 가슴에 와 닿았다. 군대에 오기 전 선교회 활동을 많이 봐 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보였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런 공연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이신지 알았다. 단지 군부대 위문공연이겠지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바꿔버렸다. 그런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여준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브라가의 소식들"이라는 갈보리선교회 간행지를 보면서 갈보리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알았다. 군부대, 양로원, 교도소 등 많은 단체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한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좀 더 고쳐 가다듬고 작게는 사소한 것부터 크게는 군인으로서의 복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오늘 많은 걸 깨닫고 생각했다. 그 깨닫고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겠다.

신선함, 강렬함, 움직임이...

국군체육부대 여호수야교회 신우회회장 오창길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25사단에서는 후임병, 고참들을 모으면서 "오늘 굉장한 선교팀이 온다던데 우리 한 번 같이 가보자"라고

CALVARY FRUIT

얘기하면서 한껏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잔뜩 기대에 찬 동료병사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서히 빛이 스며들며 사람들의 실루엣이 눈에 가득 담기기 시작했다.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어떠한 단어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선함' 이었다. 기존의 선교단체들이 만들어가던 모든 '틀' 을 깨뜨리고 기존의 '찬양집회' 라는 형식에 담겨있었던 인식을 타파하는 집회 모든 시간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렬함' 이다. 그것은 목사님의 메시지에 묻어나오는 강한 도전적 언어 속에 있는 강렬한 이미지였다. '죄' 의 심각성이

그 어떤 때보다 생동감 있게 증거되어지는 그 현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 이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나의 눈에 그려지는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병자들의 치유, 예루살렘 입성, 고난의 길이라는 테마가 전혀 새로운 움직임으로 예수님의 그 눈빛을 따라 만들어져 가는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가슴 속에 감동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아마 오랜시간이 지나도 그 모든 시간 속에 증거된 복음의 이미지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전도집회 감상 단편모음

◆ 박미숙 (거제도 오수교회)

잠잠하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던 우리 오수교회에 오셔서 뜨거운 감동을 맛보게 하시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해 주신 것과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신 선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민들레집, 애광원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노래와 공연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세요.

◆ 8사단 신병교육대 기간병 공병대 김영대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사역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는 것이 가슴 깊이, 이해하기 쉽고도 재미있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며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은 소위 말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 5사단 신병교육대 3중대 174번 훈련병 문장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밤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쓰임을 입게 되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김은경 (거제도 가배교회)

이 작은 동네까지 오시는데 힘들고 피곤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쉬도록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는 여지껏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한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럽기도 하고요... 3일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로 가슴에 콕 찔리는 말씀도 많았구요,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 최길수 (거제도 가배교회)

어제 저녁에 한 자매님이 인사를 하며 "가세요?" 하는 말을 건네는데 목이 단단히 쉬었더군요. 그때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매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피를 토할 것만 같은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의 지나온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저 분처럼 열심을 다해 했었는가를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채완근 집사(남인천교회)

이제껏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또 다른 감동의 은혜가 내게 움을 느꼈습니다. 집회 중 온 몸으로 중심을 다 드리며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매들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 그 날, 그 곳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잊고있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어느덧 내 마음 속에 큰 사랑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죄" 에 대한 말씀은 다시금 내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날마다 진실한 삶을 살며 악한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으로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국군의무사령부 6소대 이치역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 몸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전도에 힘쓰는 모습에 먼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예수인의 참모습을 보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지 진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 5사단 신병교육대 3중대 1소대 훈련병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에 더욱 믿음과 열을 다해야겠다는 것과 주님이 주신 복된 말씀을 전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Calvary Story

순회전도 감상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윤정화 (회계, 서울충만교회)



“제16차 국내순회전도”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어딘가 모르게 헛점이 보이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고침받는 시간 이길 원했다. 그리고 하루 하루를 조심히 보냈다. 강 추위를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첫 번째 집회인 거제도 거림교회 집회부터 하나님은 나의 문제점을 발견케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저 세상에 있는 20대 아이들과 다른 위치에 세워주셨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잊은채 마귀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경험케 하신다. 나는 그냥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거룩한 강단 위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외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실을 종종 망각한 채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20대 아이의 모습을 따라가려 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있으나마나 한, 자리만 차지하는 자가 아닌,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을 때 아직도 이런 칭찬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나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눈동자로 자리에 가득 모여있는 그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망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의인 열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이것이 돈보다 권력보다 능력보다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 집회를 참석한 분들이 우리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고 부럽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지 알게 되었다. 이 분들보다 정말 못한 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자생원, 애광원 등 특수기관 집회서였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이들은 믿고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사랑을 이들은 느끼고 있다.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들의 웃는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들이 가지고 있지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웃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일까? 라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다. 이렇게 여러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너무 어리석다.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필요없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신다. 역시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셨다. 갈보리적으로 있어서 또 나 개인적으로

도 하나님은 기도 한 만큼 역사해 주셨다. 이제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해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여러 팀이 만들어 졌을 때 한 팀의 리더자가 되길 바란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큰 은혜를

원종석 (단원, 서울충만교회)

순회전도 셋째날의 아침이 밝아왔다. 오늘은 오수교회와 가배교회집회가 있는 날이다. 오수교회는 3시집회로 예정되어 있어 우선 아침 11시에 우리의 숙소가 있는 가배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일인 오늘 나 자신이 좀 더 긴장이 되었고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수교회로 향했다. 오수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더 긴장이 되었다. 정성껏 마련해 주신 점심을 먹고 집회에 들어갔다.

많은 성도들이 오셨다. 나는 드디어 강단에 섰다.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집회가 점 점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달라졌다. 목사님의 결신 메시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찬양으로 집회를 마쳤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짐을 실으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 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울동과 찬양과 드라마 뿐이고 말씀 또한 교인이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인자들을 변화시키신다. 나는 기뻐다. 우선 어린 나를 이렇게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나 또한 기뻐다. 우리는 또 차를 타고 다시 가배교회에 도착하였다. 오수교회집회를 통한 치친 마음과 몸이기는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였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를 보고있는 사람들은 집회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역시 변화되어감을 볼 수가 있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은혜스러웠다. 나는 나의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회개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영혼임에도 항상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한 나 자신이 매우 어리석어 보였다. 집회를 마친 후 우리 모두는 내일을 위해 다시 열심히 움직였다. 이번 순회전도 중 벌써 삼일이 지나갔다. 앞으로 많은 집회가 남아있다. 나는 나 자신이 그 거룩한 강단에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양이나 울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왜 그 거룩한 강단에서 있는가?”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분명 나는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Calvary Story



앞으로 남은 기간을 정말 열심히 보내겠다. 언제나나 자신을 삼가야겠다. 높고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군답게 행동해야겠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 하지만 나 자신은 너무 부족한 것을 본다. 아직 철부지 같은 나라서 실수도 하고 기자재 고장을 내기도 한다.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기도와 매일의 Q.T와 성결생활을 통하여 발전시켜야겠다. 남은 기간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제16차 순회전도 셋째날을 마친다.

교회들의 질적성장이 확장되기를

김현성 (단원, 서울충만교회)



이번 순회전도는 거제도도를 시작으로 대구의 한 교회집회 후 인천으로 이어진다. 차를 타고 거제로도 우선 출발하였다. 도착하여 첫 집회는 거림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거림교회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정이 있어 보이는 교회였다. 나의 생각보다 거제도도는 그리 도시화 되어 있지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도시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었다. 거제도의 교회의 교인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표정도 거의 무표정하였

다. 목사님들은 여기 사람들이 원래 감정표현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거제도 가배교회에서는 3일 연속집회를 하였다. 또 우리 선교단의 숙소도 가배교회였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점 점 사람들이 변하여 가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3일동안 A,B,C프로그램을 다 했던 것이 내가 입단한 이후로 두 번째였다. 잘 하지 않았던 A,C프로그램을 하여서 인지 그전에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얻었다. 다른 단원들도 이런 은혜를 느끼고 있을까?하는 궁금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우리 단원들과 또 우리 집회를 참석키 위해 오신 모든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번 순회전도기간에 장애인의 집을 세군데 가게 되었다. 충무자생원, 애광원 & 민들레집, 성지원이다. 장애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이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살아갈 때에도 불편한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서러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힘을 주어가며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당장 내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이 집회에 온 힘을 다해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에 장애인들을 꺼림직하게 여기고 달갑지않게 여긴 것을 정말 회개하게 되었다.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몇몇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식어서 다시 불 붙이기도 힘든 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교회에 관심조차 없고 교회에서 외부선교단과 집회를 한다해도 무관심이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요즘 보통 교회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주일 오후나 아침에 딱 한번 모이게 하고 그 후에 아무것도 없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교회에 무슨 애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교회는 그냥 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교회들도 멀지않아 미국,유럽의 어떤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인들 중 몇이나 될까? 이런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 이번 순회전도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

이번 순회집회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서 모든 교회들에서 불이 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선 나 자신부터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겠다. 지금 나의 최선은 전도를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고 온 힘을 다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하늘나라에 상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의 수고가 우리나라 교회들의 질적 부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겠다.

대전갈보리팀 단원이 서울 갈보리팀에게 보내는 글

"만남"이란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네요. 여러분의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괜히 부럽기도 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항상 승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기쁨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역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향수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기뻐요. 많은 연습과 훈련, 노력으로 성숙한 서울 갈보리의 모습을 보니 행복해요. 언제나 계속 노력하는 갈보리, 계속 성숙하는 갈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전 갈보리 역시 훈련, 노력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겠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살롬~ -정경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워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역수는 대전에서 찬양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보지만 여러분과의 만남은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조금 더 친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하며 늘 승리하세요. -역수형제가 사랑을 담아~



어제 밤에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인데,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벽1시까지 감성문을 쓰고 큐티하는 모습..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집회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인데...또 갈보리의 집회를 보면서 프로의 모습 또한 보았어요. 6시간 걸려서 보러 온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의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승리만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팀 리더

서울 갈보리 팀은 어떠할까..기대감에서 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서울 갈보리 팀을 사랑합니다. -막내 태운

Calvary Story

나 하나가 없어도

김현철(단원, 서울충만교회)



99년 겨울 순회전도는 나에게 있어서는 7번째이다. 얼마 전만 해도 막내로서 잘 모르고 졸졸 따라다니며 일만 저질렀건만 벌써 7번째 순회전도라니 '정말 시간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쉬움과 긴장감이 든다. 여태껏 국내, 해외를 돌아다니며 복음사업에 동참하여 때때로 여러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도 순회전도를 지나쳤었다.

그러나 그 때 깨달은 것들은 어느 새 옛말이 되어버리고 내가 언제나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래서 이번 순회전도를 시작할 때에 입시문제도 있고 지난 나의 모습들이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순회전도에 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들은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었다. 거제도와 경상도 경기도, 인천지역을 단원들과 목사님과 함께 다니

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깨닫고 느끼며 그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나와 문화가 입시 때문에 중간에 빠져서 집회하는데 차질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고 그렇기에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단원들의 말을 듣고 찍은 비디오를 보니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그 만큼 채워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점점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악화져 가는 만큼 교회나 성도들의 성령의 불이 식어가고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느끼며 정말로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쓰시면서 그들을 깨우고 변화시키시는구나 생각해보며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비록 우리가 노래나 춤이나 모든 것들이 프로는 아니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프로나 천재보다 나오면 나왔지 못하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98겨울순회전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또한 좀 더 성장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가 되어야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관광객이 전도자가 되어

김철우(차량간사, 서울충만교회)



서울을 떠난 지 사흘째, 장장 500킬로미터를 넘게 달려 온 아름다운 남쪽땅이다. 서울의 날씨는 아직도 춥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길 닿는 곳에 동백꽃도 피우시고 맑은 날씨로 운행하셨다.

오늘은 새벽부터 서울로 입학면접을 보러 가는 단원을 환송하고 새벽바다 내음을 맡으며 이곳 가배리로 다시 달렸다. 이곳은 10년 만에 찾아온 곳으로 감회가 새롭다. 그 때는 관광으로 왔지만 다시 찾아온 지금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아무 쓸모없이 쓰러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셨다.

해를 거듭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내 육체와 영혼에 새순이 돌아남을 맛본다. 나의 모든 것이 비록 미약하고 하는 일이 보잘것이 없으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경솔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어제는 통영성지원으로 오늘은 장생포 애광원으로 보내신 것이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수평선을 바라보고 세워진 이 곳에서는 종려수가 열도의 땅에서와 같이 우뚝 서서 양쪽에 서서 환영식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저것은 예수님을 맞이 할 때 흔들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쓰던 종려수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 때와 같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일까?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내려오셔서 인사하시며 준비하신 스케줄을 자상하게 또박또박 설명하시는 총무님은 마치 초등학교 때 친절하게 설명하시던 선생님을 연상케 하였다. 준비하신 대로 진행하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세심함을 보았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순회전도 때 보아왔던 장애인 시설이 아니었다. 이들의 반겨주는 것과 경청하는 자세는 잡담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어느 부대의 건강한 장병들보다 경건하였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못하였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었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육체가 뒤틀리고 입술이 삐뚤어져도 문을 꼭 걸어잠그고 비디오 폰으로 동태를 살피고 차가운 말투를 쓰아붙이는 서울 어느 집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들에게 임해서서 육신이 부요한 사람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들이 울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소서 그 누구의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단원들도 감격에 복받쳐 눈물을 멈출 수 없사옵나이다.' 하며 기도를 드렸다. 반가워서 떠날 줄 모르는 애광원 원생들. 이들의 수공예품과 꼼꼼한 작품과 제빵기술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종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머나먼 독일에서 이곳에까지 찾아오신 E. R 목사님의 숨결도 가득 담겨 있었다. 사진으로 보던 티파니의 커피숍과 같은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한 에덴동산 같은 커피숍에서 이곳 원생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또 한 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주님의 숨결에 감사드렸다.

해안도로를 돌며 해금강의 오묘한 암벽을 옆으로 가배교회 저녁집회를 위해 달렸다. 기자재를 셋팅 후 영적훈련에 돌입했다. 정신무장을 하지 않고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 단원들은 또 다시 긴장하였다. 잠겨가는 성대를 다시 가다듬고 뼈격거리는 불협화음을 바로잡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우리의 울보는 역시 울음을 터트리고 음치인 나는 음정 음율을 다시 맞추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진땀과 짧은 호흡을 강훈련으로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집회도 나와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천국잔치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졌다.



합숙훈련을 받으며

박충인(단원, 울산태화교회)



합숙훈련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학교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다보니 조금이나마 담대해진(?)것 같다. 차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 그대로 차를 서둘러서 타게 되었다. 차를 타면서 나는 합숙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합숙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집회에 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서울까지의 긴(?) 시간들이 시작되었다. 제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마음놓고 합숙훈련을 하고 싶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합숙장소인 충만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착했을 때 나를 반겨주시는 목사님과 단원들의 얼굴을 보자 힘이 생겼다. 매 번 합숙훈련에 와서 했던 것처럼 기도회를 시작으로 연습이 시작되었다. 우선적으로 내일 있을 집회를 위해 연습을 하였다. 각각의 자리에서 율동, 드라마...등을 연습하고 기도로서 마치게 되었다. 내가 합숙훈련을 하면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번에는 무대에 서서 하게되었다. 피눈물나는 연습(?) 끝에 어느 정도 선배님들과 동



료단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울산에 떨어져 있어서 4개월 동안 연습을 못한 나로서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

했다. 계속되는 기도와 여러가지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들이 힘든 것들을 잘 이겨 나가는 만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참아냈다. 마지막 훈련 날이었다. 이번에는 A, B, C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연습을 시작하였다. 매 번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하게되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시작 할 때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로서 시작을 하였다.

집회 할 교회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들과 단원들을 위해서 모든 여행, 건강, 기자재, 일기, 두고기는 교회등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목놓아 부르짖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아마도 힘들어서 훈련들을 제대로 하지 못 했을 것이다. 부족한 나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지켜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번 훈련을 하게 되면서 부딪혀 보기도 전에 두려워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내가 거룩한 무대에 서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앞세우며 해야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새 회원교회 소개

윤정화 (편집위원)

이번 국내순회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동역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우리와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분들을 붙여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 분들 중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3일 연속집회 한 가배교회 김기현 목사님이시다. 가배교회는 우리가 거제도에 있을 때 5일간 숙소로 정해진 교회였다.

처음에는 섬이기에 추운 곳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지낼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가배교회를 준비해 주셨다. 앞에는 멋있는 바다, 뒤에는 산,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더욱 정도로 따뜻한 방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또 매 끼마다 정성스런 음식으로 전도자들을 대접해 주셨다. 교인 한 분 한 분마다 순수한 모습이었고 3일 연속집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너무나 아쉬워하셨고 각 단원들에게 알뜰한 선물도 주셨다. 대구까지 가는동안 목마르지 말라고 과일도 몇 상자씩이나 실어 주셨고 거기에 따뜻한 붕어빵까지 활짝 웃으시며 넣어주셨다. 또 우리가 함께 전도할 이사교회가 되시기로 약속하셨다.

너무나 순수하시고 겸손하신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게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되었다. 이제 더 많은 나라와 영혼들에게 가배교회와 김기현 목사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전달되게 될 것이다.



갈보리선교단 초청 집회 신청안내

갈보리선교단 초청집회를 하기를 원하는 교회, 기관, 단체는 먼저 전화(02.423.2826)해 주셔서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담당자/박지연 간사) 원하시는 일시에 정확히 집회하고자 하시면 2개월 이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lvary Peopel

김철우 간사

우리 갈보리 선교단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철우 간사님이다. 김철우 간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 분이 오시기 전에는 종종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 곳에 연락해 부탁을 했어야 했다. 또 기자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허둥지둥거렸는데 기사자격증도 있어서 무엇이든 고친다. 그래서 별명이 '김가이버'이다.

나이 어린 단원들이 눈치없이 굴고 예의없게 행동하면 지혜롭게 이끌어 주고 어떻게 해야는지 가르쳐 준다. 운전이다 기자재관리다 여러가지 일을 해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늘 웃으며 밝게 사역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전도집회시 단 위에서의 모습도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드라마를 할 때 깃세마네에서 피땀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일 때는 누구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연기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것은 연기력 보다 바로 간사님이 지난 시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과감하게 직장과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력 또한 모두에게 큰 귀감이다.

이런 여러가지 모습을 통해 다른 단원들에게 도전과 새마음을 갖게 해주는 간사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더욱 밝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편집실〉



주정림 간사

갈보리선교회에서 서기직을 맡고 있으면서 후원회원으로, 특별전도팀원으로, 장애인 전도와 유치장 전도(B팀)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주정림간사는 현재 여자 단원 중에서 가장 고참이다.

후배들과 나이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지만 누구보다도 소녀다운 심성으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갈보리 단원 안에서는 일명 '왕언니'로 통한다. 아마도 갈보리 사람들 가운데 이 왕언니의 도움이나 선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간사님은 베풀기를 잘한다.

교박교박 생일을 챙겨주시는가 하면, 각종 경조사항에 빠지지 않고 작은 정성이라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 단원들은 종종 '베풀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된다. 왕언니의 또 다른 특기는 개인전도이다. 처음 이 성도님을 대하는 사람은 이 말에 의심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주정림성도님은 겉으로 볼 때 매우 내성적이기 때문이다. 말씨도 조용조용하고, 결코 대범한 성격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때론 그들의 거부를 저지하고 반박을 이겨가며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왕언니의 전도실력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에 순회전도기간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불교신자 아저씨를 전도하던 모습을 본 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 "왕언니가 가장 용감할 때는 전도할 때이다."

정말 그러하다. 왕언니는 전도할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 왕언니는 혼자 전철을 타고 갈 때 옆자리의 사람에게 말을 걸어 전도한다. 또는 지방이나 전방에 전도를 갔다가 밤늦게 차가 끊겨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어김없이 택시운전기사아저씨를 전도한다.

몇 년 전 충만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결신도 시킬 수가 있다. 왕언니는 스스로도 전도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한다. 왕언니는 베푸는 모습 뿐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전도의 모습에 있어서도 단원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다.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가장 소녀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항상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도 전도할 때는 슈퍼우먼으로 변하는 왕언니는 갈보리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편집실〉



Missionary Report

김을룡 선교사 (북방국)

할렐루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그리고 가족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희들도 은혜 중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들 규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는데 내년이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게(99년 7월)되는군요. 혹독하기만 했던 9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을 치뤄야 하는 이곳 저희들도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시는 동역자님들의 아픈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지고자 절약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감당해 왔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사역비로 털어쓰고 집안의 물건들을 팔아서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사역을 줄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일들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고 선교적 열매는 중국 땅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한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오늘도 주님이 맡기시면 담대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을룡선교사 올림

■ 주요사역

- 교회음악지도자 양육사역
- 장애인선교 특수사역
- 미전도 종족(소수민족)사역

■ 기도제목

- ① 교회예배인도자 및 교회음악지도자 양육사역(길림성, 운남성)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② 장애인 기술훈련센터가 장애인들의 기술훈련 및 선교의 장이 되기를
- ③ 밀알공동체와 밀알실업회사, 이미 세워진 장애인선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 ④ 소수민족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이 지혜롭게 진행되도록
 - 이족, 묘족 등 연약한 소수민족 지역교회들을 위해
 - 복음을 받지 못한 하니족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 위글족을 위해, 회교권 속에서 사역하는 스테반 부부와 내몽고의 오형제와 김자매를 위해
- ⑤ 귀주성 및 사천성 신학원 안에 교회음악과가 세워질 수 있도록
- ⑥ 자녀들(규진과 지혜)의 교육(진학)을 위해



전봉주 선교사 (필리핀)

할렐루야, 어쩐지 요즘에는 고국의 하늘이 몹시도 그리웁습니다. 그간도 성은 중 평안하셨는지요. 수시로 접해보는 고국의 소식은 어려움과 반갑지 않은 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당신의 필리핀에서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더 이상 확장하고 싶지 않은 일도 주님은 계속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간의 소식을 기도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① 장로교 목회자 핸드북 제작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장로교 목회자들이 전혀 통일되지 않은 교회예식을 집례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른 교단의 것들을 임시로 사용해 왔는데 지난번 이곳 필리핀 장로교총회의 임원회의에서 허락을 받아 영어와 따갈로그어로 된 장로교회 예식서를 정식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번역작업은 저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맡아서 수고하게 됩니다. 금년말에 제작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한자경선교사의 의료선교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닐라 시내에 필리핀 현지 목회자를 위한 작은 크리닉을 열려고 합니다. 이곳 현지 의료선교팀인 BINHING BUHAY의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되 선교를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가능한 무료로 혜택을 주려고 하며, 약국도 동시에 운영을 하려 합니다. 언어구사에 불편이 있는 한국교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③ 까비떼의 이무스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쿠틴에서 교회개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또목사님이 남부지역 노회의 지원으로 교회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가정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역 중 교회개척이 가장 어렵고 또 사탄의 방해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승리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④ 각 교회의 자립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쿠틴장로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입니다. 매달 무거운 월세를 내야하는 빠라나개교회는 약국운영 및 가정용 LPG판매를 하고 있고, 비쿠틴장로교회는 트라이시클을 주중에는 동네택시로 운영하고 주일에는 교회사역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자립성장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⑤ 선교사들의 철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충격은 선교사들의 조기 안식년과 철수를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선교사들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선교부에 속해 있는 교회들 중 몇몇 교회들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교회는 월세를 내지못해 주인으로부터 독촉을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문을 닫은 교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본 선교부의 책임을 맡아있는 관계로 이 모든 일을 다 떠맡아야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의 지원이 참으로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Faith Christian Fellowship 교회
- 2) 마이산장로교회
- 3) 필그림 장로교회
- 4) Grace장로교회
- 5) 라스피나스장로교회 등입니다.

우리 고국과 필리핀 등 모든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소서!

필리핀에서 작은 종, 전봉주선교사 올림.

Missionary Report

장애인 전도를 담당하며



주정림
(서기·서울증가성결교회)

장애인 전도팀은 한 달에 두 번 북정동에 있는 참사랑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곳엔 4살 때 맹인이 되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미움받고 소외당한 33세된 성도님과 두 명의 정신지체아, 건강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곳에 온 여자 어린이와 남자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가족과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과 두 주간 동안 지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그들이 예배를 드릴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날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과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아프고 외롭고 슬펐던 그들의 몸과 영혼이 점차 치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맹인인 성도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힘이 든다면서 돌봐주는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참다못해 화를 내는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예배시간마다 말썽 피우고 매맞고 울고하던 장애가 심한 아이도 많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애인 전도를 하게 된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규칙적으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는 일, 사랑실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조금씩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인 전도는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제사와 성경공부를 반복하고 상담을 통한 내적 치유의 시간과 간식을 먹으며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행됩니다. 이 일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많은 시간을 드려야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부수서도 만들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아직 숫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있으며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영적 성장과 지능개발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ews Line

***진학/** 윤정화간사(충만교회,서울팀)가 광운대학교에, 김현철단원(충만교회,서울팀)이 호원대학교에, 구문희단원(울산태화교회,울산팀)이 고신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개업/** 김철우간사(충만교회,서울팀)가 복음전도를 위해 이전 직장을 포기 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차업을 개업하여 프리랜서로써 전자제품 판매, 수리도 병행하게 되었고 장항석 단원(인천송의감리교회,엔지니어)이 컴퓨터게임업을 개업하였다.

***건축/** 울산태화교회(박신봉목사,이사장)는 연건평 600여평 되는 교육관을 완공하고 준공예배를 앞두고 있고 신제주 제일교회(우중하목사,이사)는 당회장실을 신축중에 있다. 또한 대전 성남 제일교회(천대근목사,대전지회장)도 건평 150여평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교회명도 참아름다운교회로 개명하였다.

***찬송경연대회 1등/** 이리임상교회(정이남목사,이사) 여전도회 찬양팀이 이리노회 찬송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하였다. 동 교회 여전도회 찬양팀은 크로마하프연주를 통한 찬양으로 갈보리선교단과 함께 논산훈련소와 하사관학교 등지에서 함께 공연하기도 한다.

***심경식성도(후원회원)**는 어머님과 온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의탁노인 68명을 돌보는 사랑의 집(원장: 한복려, 경기도 군남면 황지리 3번 361번지, TEL. 0355)832-7764)을 봉사하며 섬기고 있다. 심경식 성도는 직장인으로서 퇴근하면 차량봉사와 기타봉사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갈보리선교회가 하는 일

국내사역

1. 경찰서 유치장 전도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격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찬양, 워십댄싱, 간증, 말씀, 간식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현재는 서울에서 2개팀, 대전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2. 장애인 전도

월요일에 격주로 정해진 장애인 수용처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목욕시키기 등 봉사과 기초 성경공부, 사랑의 교제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서울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3. 특별전도팀 전도

군부대, 중·고·대학교,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 특수기관 또는 교회와 지방 순회전도를 위해 워십댄싱, 드라마, 판토마임, 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조직된 팀으로 평상시에는 모든 공휴일과 월2회 주일 오후 시간에 사역하고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지방 순회전도를 함. 공휴일에는 주로 낮과 밤 2회에 걸쳐 군부대 전도집회를 하고 순회 전도시에는 낮에는 각종 기관에서, 밤에는 각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함.



해외사역

1.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각국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3주간 동안 각국 현지인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순회전도 함. 지금까지 11개국에서 사역하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외 순회전도시에는 현지 언어로 모든 것을 수행함.

2. 선교사 양성 및 해외선교사 지원

선교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 현재 일본, 필리핀, 싸이판, 중국 등 6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단원 훈련사역

1. 정기모임 훈련

매주 수요일 저녁에 본부교회(충만교회)에 회집하여 영성훈련과 각종 사역연습 함.

2. 7월과 12월, 1월에는 국내외 순회전도를 대비하여 합숙하며 훈련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국내집회

고아원·재활원

곡성삼강원/김제 영광의 집/목포공생원/복지법인홍익 보육원영아원/사랑복지시설 우리집/사랑의 집/성산정신요양원/성남보육원/서림복지원 -2회/새별원/성남보육원/진성원/제주정신요양원/성보재활원/아산 가나안 우리집/인천 신명 보육원/애증원/한빛지움복지원/통영자생원/거제도애광원/거제도성지원

교도소

순천교도소/육군교도소 -3회/소록도교도소/안양교도소 -2회/전북소년원 정신요양원.진성원/충주교도소/진주교도소/군산교도소/광주소년원/천안교도소/청주소년원/국군교도소/강릉교도소

교회

경기도.강원도 순회전도시 저녁 지역교회 집회/강원도 임곡교회/강동교회 (나함수목사)/고성중앙교회 (한남석목사)/금당교회 (남규철목사)/강남제일교회 (이종희목사) /경북지동교회 (백창남목사)/거제도거림교회(최경수전도사)/거제도수교회(정상길목사)/거제가배교회(김기현목사)-3회/경북장평교회(강병원목사)/인천인광교회(계한교목사)/인천남인천교회(김찬홍목사)/인천은성교회(이상철목사)/인천송의감리교회(이호문목사)/구로제일교회 (강풍일목사) /고흥신평교회 (선인순전도사)/고흥동동제일교회 (정충원목사)/고흥거금도대흥교회(이선행목사)/공항백일교회 (오세관목사)/광주서문교회 (리영숙목사)/군산개복교회 (김중석목사)/군포양익교회 (김갑용목사)/금담교회 (김승권목사)/남면교회 (이건양목사)/도리원교회 (박종철목사)/동원교회 (이수철목사)/대산제일교회 (이순상목사)/대광교회 (강동원목사)/대전삼광교회 (이현기목사)/대전대일교회 (김기중목사)/대전성남제일교회 (천태근목사)/대구대봉제일교회 (이광호목사)/대구신일교회 (최태근목사)/대구황금교회 (박무용목사)/대구성서중부교회 (이동은목사)/대구아멘교회 (김명동목사) -3회/모산제일교회 (박재규목사)/목포신화로교회 (최기선목사)/목포상리교회 (백영규목사)/목포영락교회 (송귀목목사)/목포호남교회 (김명남목사)/목포예손교회 (최우식목사)/백령도화동교회 (장봉춘목사)/백령도중화동교회 (전용류목사)/백령도진촌교회 (박용성목사)/백령도중앙교회 (홍성문목사)/부산청학교회 (손기현목사)/부산광안제일교회 (이주환목사)/부천갈보리교회/부안대동교회 (오창환목사)/봉동중앙교회 (박종대목사)/소록교회 (정윤성목사)/소록도연합교회 (김두영목사)/소록도신성교회 (김두영목사)/소록도남성교회(김명환목사)/소록도신성교회(김명환목사)/서울사랑교회(김중석목사)-2회/서산양대교회 (이연오목사)/성남신광교회/성남성지교회 (정광수목사)/삼은대길교회 (이성규목사)/성림교회 (김정구목사)/신풍교회 (송길수목사)/신제주남교회 (김재석목사)/순창협성교회 (박성대목사)/신도교회 (김춘화목사)/서울목양교회 (이광복목사)/서울에덴교회 (국용환목사)/서산제일교회 (여두중목사)/신전교회(오규환목사)/인천무지개교회 (박학원목사)/안양교회 (전순기목사)/울산태화교회 (박신봉목사) -4

회/울산심양교회 (권주식목사)/울산삼양교회 (정연철목사)/울산목양교회 (현광식목사)/양의문교회 (김갑용목사) /양구교회 (김평목목사)/약곡교회 (박종봉목사)/양우리교회 (김해수목사)/울산충현교회 (이대수목사) -3회/울산우정교회(변재훈목사)/울산대암교회 (배광식목사)/양구동면교회 (김철환목사)/영광교회 (박광재목사)/울산남울산교회(이광희목사)/울산대광교회(서정배목사)/안양동성교회 (박영언목사) -2회/익산중앙교회 (은준표목사)/익산고현교회 (최창훈목사)/울산검단교회(박복삼목사)/울산명성교회(손종철목사)/울산울산남교회(김호환목사)/울산서현교회(이성택목사)/예산우리교회 (황용현목사)/양구장로교회 (김평목목사)/옥도교회 (김신성목사)/영암교회 (이충래목사)/의항교회 (이창섭목사)/온양갈보리교회 (도승현목사)/원주성광교회 (남종수목사)/이리임상교회 (정이남목사) -2회/전주성복교회 (이창남목사)/전주해성교회 (정남철목사) -2회/적성제일감리교회 (최종운목사)/전주송죽교회 (김응식목사)/전주우아영성교회 (정동철목사) /전주성광교회 (오초목사)/전주예본교회 (최공훈목사)/전주반석교회 (나성규목사)/정읍정애교회 (박창훈목사)/정읍낙양교회 (이삼규목사)/정읍마태교회 (양병오목사)/장흥중앙교회 (백영태목사)/주문진제일교회 (백종연목사)/전남병영중앙교회 (양성경전도사)/제주서문교회 (김인석목사)/충안교회 (김승석목사)/충남노회중고등부연합수련회(노희장 연용희목사)/창원성주교회 (이상열목사)/천안장로교회 (이정호목사)/천안제일교회 (이한우목사) /천안중부교회 (문용권목사)/평원교회 (이상태목사)/포항대광교회 (이호현목사)/태안파도리교회 (김중남목사)/태안성신제일교회 (이종석목사)/태안성결교회 (강형석목사) /하남장로교회 (김무환목사)/홍성중앙교회 (서진영목사) /혜성교회 (송부근목사)/한마음교회 (이승동목사)/대흥교회 (이선행목사)/울산우정교회 (변재훈목사)/울산대암교회 (배광식목사)/남울산교회

군부대

경기도 연대부대/경기도 운전 전방부대/경기도 춘천2개부대/경기도 연천부대/경기도 연천 35연대/경기도 포천부대/강원도 통천부대/국군대구병원교회/국군부산병원/국군광주병원/국군체육부대/국군의무사령부/기드온군인교회/고창군부대/공병2대대 2136부대-참사랑교회/광주 통합병원/광주 상부대/논산 훈련소 연무대교회 -3회/담양 공수부대/대구 2군사령부-무열대교회 -2회/일물부대 천보교회/맹호부대신교회/맹호부대수기사공병부대/보병7765부대 연대본부 - 임마누엘교회/보병28사단81연대2대대 성도교회/백령도 해병대 제 6여단/백령공군기지교회/수기사사단-천하제일맹호교회/상승열쇠부대 35연대-새소망교회/사단1여단-비호교회/새생명군인교회/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양평 기갑부대/육군항공대/육군항공단/육군하사관학교-소망교회 -5회/육군하사관학교 계백관/육군종합행정학교-2회/육군사관학교/육군덕정병원/육군항공사령부1기갑여단/육군 3포병여단 379대대-포성교회/울산 3935부대 /육해공군본부교회/제주 지역사령부/제26기 기계화보병사단/철원2사단 포병부대/치안본부교회/포병59대대/포항 해병대 충무교회/포항 해군제9506부대/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제2충무교회/해병기동특공부대/해성군인교회/해산진 군인교회/특전사(공수부대)/2군수지원사령부/36연대 2대대-십자군인교회/57전차부대/75여단 125기보대대-

한마음교회/703특공연대-기드온교회/706특공연대 1사단 본부/1사단 포병연대본부/1사단신병교육대/1포병여단105여단105대대2567부대/1기갑여단/2사단신교회/2사단 17연대 쌍호교회-2회/3군직할화학대대 76사단본부/5포병여단/5사단 본부 열쇠교회/5사단신교회 상승교회 -6회/5사단 35연대 1대대 늘푸른교회/5사단35연대3대대/5사단 7895.101부대 상승소망교회/5사단 36연대 3대대 십자군교회/ 5사단 포병연대 선교교회/5사단 수색대대 시온교회/5사단 7895부대 3대대 시온교회/5사단 공병대대 참빛교회/5사단신교회 상승교회 -6회/5사단 새생명교회/5포병여단 6야포단 내/ 6사단신병교육대/6포병여단 866대대 /628포병대대/6163부대 소망교회 -2회/7사단5연대 3대대/9사단 신병교육대 -2회/9사단 29연대 3대대 여호수아교회/15사단 신교회/20사단사령부/21사단 66연대 3대대/21사단 66연대 2대대/22사단 수색대대/25사단 통신대대/25사단 70연대 2대대 신병교육대/25사단 70연대 4대대 밀알교회 -2회/25사단 72연대 미스바교회 -2회/25사단 71연대 3대대 중앙상승교회/25사단 8567부대 상승교회/25사단 72연대 2대대/25사단 비룡부대 수색대대 - 햇빛교회/25사단 71연대 3대대/25사단73연대2대대/26사단 신교회-2회/26사단 7856부대 은하교회/26기보사.기갑 수색대대 기드온교회/26사단 9200부대 베다니군인교회 /26사단 포병여단 228대대- 오봉제일교회/28사단 3357부대 송죽교회/30사단 52전차대대 한사랑교회 /31사단 96연대 1대대/31사단 신병교육대/32사단 98연대 2대대/32사단 98연대 나눔교회 -2회/35사단 105연대 백오교회/35사단 2632부대 충경군인교회 /35사단 106연대 2대대/35사단 제2632부대 충경교회 -2회/36사단 신교회39사단 충성교회/ 50사단 신교회 -2회/50사단 123보병연대 5대대/ 53사단 127연대 임마누엘교회/68사단 포병연대 반석교회/70사단 충성교회/1117부대 충성교회/1118부대 야전공병단/1936부대 야공단교회/2123부대/2136부대 열쇠교회/2136부대 공병대대 참빛교회/2646부대 본부중대 충성교회/2756부대 수기사 번개교회/3287부대 은혜교회/3653부대/3878부대 수도기계화 부대 /5152부대 소나무교회/5198부대 번개교회/ 5198부대 맹호포병교회 -2회/5685부대 기드온교회/6116부대 659포병대대 소망교회/6163부대 공병3중대 복음교회/7317부대 사랑리교회 -2회/7376부대 신병교육대/7391부대2대대/7501부대/7525부대 낙원교회 /7598부대 1대대 임마누엘교회/7765부대 762관리대/7856부대 불무리교회/7856부대 강병교회 -2회 /7895부대 3대대 시온교회 -2회/7895부대 안전교회 /7895-301부대 시온교회/7895-101부대1대대 상승소망교회/8098부대 백오교회/8205부대 산돌교회/ 8261부대 문바위교회 -2회/8265부대 205특공여단 백호교회/8297부대 온누리교회/ 8567부대 2대대 /8539부대 3대대 햇빛교회/9287부대 도하군인교회 -2회/9293부대 301. 찬양교회/9293부대 2대대 다락방교회/9293부대4대대 임마누엘연대교회

기타집회

소록도국립나병원/기독교방송(CBS)-진리의말씀(매주목요일오후5:30)/기독교방송(CBS)-찬양의 꽃다발(매주목요일아침7:10)/찬양의 꽃다발-기독교방송국/국민은행-선교회관/전북기도원/기독교방송(CBS)-잠깐들어보실까요(매주목요일오후3:50)/전국목사장로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수련회(경주코오롱관광호텔)/미스바기도원/외향선원 초청 전도집회 -3회/변화산기도원/함동산기도원/울산 동강병원/재한 외국인근로자 초청전도집회/

양로원

신아원/제주도양로원 /모슬포제일교회양로원/성애경로원/복음양로원 -2회/신망애양로원

특별집회

칼빈음악제 (칼빈대학교)/제1회선교음악회 (YWCA 대강당)/제2회선교음악회 (아가페종교음악실)/제3회선교음악회 (중앙대학교대강당)/제4회선교음악회 (온누리교회)/올림픽전도(주경기장,올림픽공원광장)/싱합렐루아전도(88올림픽체조경기장)/함덕해수욕장집회/치안본부

학교

송전대학교 - 3회/충청태안지역청소년집회/중앙대학교/서울신학교/연세대학교/정신여자고등학교

해외 집회

제1차. 대만 - (2주간)

산지교회(대북시)/백천교도소/광복교회/대동교회/평지교회/남산교회/화사대자장원(장애인)/대동마산교회/대북복음원/우화교회/한산교회/백천감옥소/ 마카오병원/대동신학교

제2차. 미국 - (3주간)

엠마오교회/온누리교회/나성총현교회/하시앤다교회/RADIO KOREA 방송국 출연/디즈니랜드아외공연전도 (-이상 로스앤젤레스)
안다옥교회/아가페교회/말씀교회/불꽃교회/뉴욕시 노방전도 (- 이상 뉴욕)
위싱턴장로교회/위싱턴소망교회/북부한인장로교회/웨플리안 리타이어먼트센터(미국인, 양로원)/헬로우펍교회(미국인교회)/위싱턴 중앙방송국 출연 (- 이상 워싱턴)
비발리마이너 양로원(미국인양로원)/제일장로교회 -2회연속집회/미연방교도소 (-이상 아틀란타)
헤브론교회 -2회연속집회/미시간호수공원 야외집회 (-이상 시카고)
하와이양로원(미국인양로원)/하와이교회/에덴장로교회 -3회연속집회/와이키키해변 노방전도 (-이상 하와이)

제3차. 태국 - (2주간)

방콕 할렐루아교회/방콕시 노방전도/우돈 국민학교/우돈 헬로우펍교회/B. D. I 신학교/방콕 글로리교회/태국복음신학교/와타나 여자고등학교/치앙마이교회/태국한인장로교회/방콕 오순절교회

제4차. 필리핀 - (1주간)

마닐라장로회 신학교/자유의 섬교회/마닐라한인연합교회/따리 농구장/마닐라교도소/바공바인교회/리질교도소/라스피냐스교회/빠라냐예 농구장

제5차. 일본 - (2주간)

요코하마미도리노교회/가와고시야로원/동경국립음악대학/열매맺는 집교회/빌리그래함 동경집회/아외전도협력성민교회(교포교회)/효고경무고교회/요코하마미도리노교회/가와고시야로원/동경국립음악대학/열매맺는 집교회/빌리그래

함 동경집회/아외전도협력/성민교회(교포교회)/효고경무고교회/오사카 주예수그리스도교회/동경아마데오교회/오사카 기독교실업인회 초청만찬공연(사카이 호텔) /시즈오카교회

제6차. 중국 - (2 주간)

현지 사정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음

제7차. 홍콩 - (1주간)

홍콩제일교회

제8차. 싸이판 - (1주간)

커뮤니티스쿨/소년원/예순장로교회(중국인, 조선족, 한인)/싸이판한인장로교회/양로원/예순장로교회(차모르족, 한인)/싸이판성결교회(중국인, 한인)/그레이스아카데미스쿨(유치원, 국교 1. 2. 3. 4. 5학년, 중, 고등학생) -4회 연속집회

제9차. 괌 - (1주간)

리파오파크(아외전도집회)/마이크로네시아물(소핑물 중앙홀)/괌제일장로교회(교포교회)

제10차. 미국 - (3주간)

L.A 삼성장로교회/뉴욕말씀장로교회/뉴저지말씀장로교회/후랭클린양로원/뉴욕대학교교회/뉴욕안다옥교회/호산나연합감리교회/유니버시티가든양로원/성령강림교회/N. M. CAROLL 흑인양로원/볼티모어제일연합감리교회/애틀랜타제일교회/순복음 애틀랜타교회

제11차. 캐나다 - (1주간)

CUMNER 양로원(유태인)/성산장로교회

제12차. 중국 예정

갈보리선교회 유치장전도팀 집회목록

A팀 : 83년 - 88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동부경찰서)
84년 11월 - 87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남경찰서)
84년- 88년 - 90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성동경찰서)
88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청량리경찰서)
90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영등포경찰서)
90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남대문경찰서)
90년 - 94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동대문경찰서)
93년 - 97년 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송파경찰서)
95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남경찰서)원주경찰서/강릉경찰서/삼척경찰서/속초경찰서/광주서부경찰서/광주경찰서/여수경찰서/고흥경찰서/제천경찰서/대전경찰서/대전서부경찰서
B팀 : 87년 - 93년 9월, 94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 (노량진경찰서)
87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관악경찰서)

89년 - 90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남대문경찰서)
92년 5, 6월, 94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송파경찰서)
93년 - 94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동대문경찰서)
93년 - 94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청량리경찰서)
95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중(강동경찰서)
C팀 : 87년 - 88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남대문경찰서)
87년 - 88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영등포경찰서)
89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동경찰서)
90년 - 91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성동경찰서)
91년 - 95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남경찰서)
95년 격주로 토요일 실시(노원경찰서)
D팀 : 88년 - 91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동부경찰서)
88년 - 90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남경찰서)
89년 - 93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동대문경찰서)

90년 - 93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청량리경찰서)
E팀 : 88년 - 93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동경찰서)
88년 - 89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동대문경찰서)
89년 - 93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강남경찰서)
F팀 : 91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중(대전동부경찰서)
90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중(대전서부경찰서)
94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중(대전북부경찰서)
90년 - 99년 현재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중(대전경찰서)
G팀 : 90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대전경찰서)
90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대전서부경찰서)
91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대전동부서)
91년 - 92년까지 격주로 토요일 실시(대전서부경찰서)



갈보리선교회 장애인전도팀 집회목록

정신병자요양소/성음교회 장애자의집/늘사랑교회 장애자의집/임미누엘의 집/성남 은혜의집/하혜성 사랑의집/하남시 나그네의집/*현재는 할렐루야의 집을 격주로 정기방문하여 실시중

후원회원, 단원 가입 신청 안내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본 회 사역을 위해 수요일 밤 훈련시간(하절기 오후 7시 30분, 동절기 오후 7시)과
공휴일과 주일 저녁(월1~2회)의 전도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원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자신이 책정한 후원회비를 본 회 MICR 용지를 사용하여 송금하시면 됩니다.
(MICR 용지는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_____ (교회는 교회명, 개인은 개인명, 단체는 단체명을 기입)

대표자명: _____ 직위: _____

가입자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자택/ _____ 교회(단체) / _____

소속 교회명: _____

소속 교단: _____

후원회비: 월 _____ 원(후원회원만 기록)

상기 본인은 귀 선교회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귀 회의(후원회원, 단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희망란에 ○표 하세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갈보리선교회장 귀하

갈보리선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선교회장 : 김승석 서기 : 주정림 회계 : 윤정화 부회계 : 박지연 감사 : 김진문
이사회 : 이사장 : 박신봉 회계 : 김진문
실행이사 : 박신봉, 김중석, 정이남, 김중남, 박광재, 우종하, 오성환, 김기현, 김승석
운영이사 : 박영언, 김명환, 천태근, 송부근, 갈동수
실행위원 : 위원장 : 김승석
간사 : 김철우(차량, 구매), 박지연(행정), 김현철(기자재) 백주현(위십댄싱, 의상),
윤정화(컴퓨터, 홍보), 유선영, 장항석(엔지니어)

후원회
차인자 외 여러분들

브라가의 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승석
편집인 : 김철우
편집위원 : 박지연 백주현 윤정화
인쇄 : 진리와자유(T. 2268-3604)
발행 : 갈보리선교회 홍보위원회

■ 온라인 번호

• 국민은행 825-21-0082-437(김승석) • 서울은행 27907-0386017(김승석) • 상업은행 146-08-237723(김승석) • 한일은행 138-163174-12-001(김승석)
• 제일은행 204-20-238677(김승석) • 외환은행 100-19-14709-1(김승석) • 농협 017-12-077384(김승석) • 우체국 013656-0025660(김승석)